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 도시와 쓰레기-4부	40 아침연속극 <미쓰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감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30 MBC뉴스 45 기본종은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즐거운 책 읽기 55 비틀레 고요한	00 지구촌 뉴스 20 TV 특강(재)	11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일일연속극 <우리집여자들-재>	12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40 명생앨범 산	1	30 도전! 슈퍼대디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 다큐시대	2	10 건강클리닉
00 KBS 연중기획 시청자와 함께 세상을 나눕시다	00 KBS 뉴스타임 05 로또 짝배 35 출발 모닝와이드 미술탐험대	3	10 세계최고의 명수들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연중기획 시청자와 함께 세상을 나눕시다	00 TV유치원 30 최강합체 믹스마스터	4	00 스캔2고 30 감성여행 간지역 스페셜
00 KBS 뉴스 10 KBS연중기획 시청자와 함께 세상을 나눕시다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 릴레이	5	00 SBS 뉴스 페어리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10 가요쇼
00 6시 내고향-세계유기농대회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00 생생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
25 일일연속극 <우리집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호우리거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뉴스데스크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특별기획 드라마 <공주의 남자>	9	55 수목미니시리즈 <지고는 못살아!>
00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초대대통령 이승만		10	05 커버댄스 페스티벌 K-pop 로드쇼
00 KBS 뉴스리인 40 현정포도 동행	15 해피투게더	11	15 스타부부쇼 자기야
25 KBS 뉴스 35 농독의 발견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 특강	12	00 MBC 뉴스 24 10 MBC 100분 토론

배우 김주혁 "강속구 투수 됐어요"

내달 개봉 김상진 감독의 '투혼'서 윤도훈 역 맡아

‘적과의 동침’(2011)에서는 인민군 장교 정웅 역을 맡았다. 지난해 ‘방자전’에서는 지고지순한 방자 역으로 호평을 이끌어냈다. 다음 달 6일 개봉하는 김상진 감독의 ‘투혼’에서는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비상하는 투수 윤도훈 역을 소화했다. 최근 다양한 역할로 관객들을 찾아 가는 배우 김주혁 이야기다. 김주혁은 ‘투혼’에 출연한 계기에 대해 “기교를 쓰지 않는 직구 같은 영화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간 소심한 회사원에서 조선시대

방자까지 다양한 역할에 도전했지만, 야구 선수 역할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을 던지는 데 익숙지 않았던 그는 혹한을 이겨내며 촬영에 매진했다. 자 연스럽게 부상이 따라왔다. “어깨에 부상을 입었어요. 겨울에 촬영하다 보니 무리가 갔습니다. 그렇다고 안된 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필이면 강속구 투수라 투구 액션도 힘차게 해야 했습니다. 영화 끝나고는 아예 팔을 못 쓸 정도였어요. 호전됐지만 지금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김주혁이 스포츠 영화를 선택한 건

역설적으로 지쳤기 때문이었다. 전작인 ‘적과의 동침’을 찍으면서 “너무 괴로웠다. 영화를 찍으면서 고갈되는 느낌이였다”고 토로한 그는 연기를 통해 빨리 에너지를 얻고 싶었다고 한다. “빨리 총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투혼’ 출연 제의가 들어왔죠. 에너지를 얻고 싶었습니다. 기대대로 그런 에너지에 대한 갈망이 윤도훈이라는 인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내로 출연한 김선아와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김선아는 바람 잘 날 없이 사고란 치고 다니는 도훈과 티격태격하면서도 애정을 쌓아가는 오



유한 역을 연기했다. 그는 “김선아는 사교적인 친구여서 빨리 친해졌다. 풋풋한 로맨스가 아니라 오래된 부부의 냄새를 풍겨야 했기 때문에 빨리 친해지는 게 중요했다”며 “다행히 그렇게 돼 연기 호흡을 맞추기 수월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20회 光日盃 光日盃

광주 전남 직쟁비독대인

입장이 바뀐 꽃놀이패

2회전 2국 8번(165~189)

白 조시균 5단 (전남교사회)

黑 강상원 5단 (한국전력)

백 182, 180, 181, 179, 169, 167, 174, 178, 176, 177, 187, 185, 186, 166, 165, 184, 183, 189

백 182 때 내 패가 오히려 흑이 마지막 승부처가 되고 있다. 이 패는 언뜻 보면 백의 꽃놀이패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히려 흑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흑 대마는 살자는 자체 갯감이 많았지만 백은 마땅한 갯감이 없다. 더군다나 이 패를 흑이 이긴다면 좌변에는 ‘참고도’의 흑 1부터 9까지 선수로 백 석점을 잡는 수단이 남고 상변 백 대마도 180으로 밀고 들어가는 순간 잡히게 된다. 또 다음에 알 수 있지만 우하변 백 대마도 못살아 있다. 이 모든 문제를 단번

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패는 오히려 흑이 즐거움이 넘치는 패사움인 것이다. 결국 조시균 5단은 고인 끝에 백 174부터 176까지 좌변을 해결했으나 강상원 5단은 흑 179로 여유있게 상변을 보강하자 백 182로 살지않을 도리가 없다. 이때 하변을 흑 171로 끊어간 것이 일찍부터 러리던 결정타가 되었다. 189까지 정확한 수순으로 백 대마의 명맥이 끊겼다. 긴 싸움을 마무리하는 일격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EBS		
06:00 극한직업	10:00 최고의 요리비결 <박경선의 계절밥상>	16:20 깨미(재)
06:30 미래직업 뜨는직업	10:30 60분 부모	16:35 뽕뽕뽕 뽕뽕(재)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1:30 이빠 놀이방	16:50 방구대장 뽕뽕(재)
07:10 제로니모의 모험	12:00 EBS 정오뉴스	17:00 제로니모의 모험
07:35 꼬미리관차 토마스과 친구들	12:10 TV인화사정관	17:15 한글친구 이리차
07:45 뽕뽕뽕 뽕뽕	13:00 세계대마기행 <인대의 영혼 불리비아>	17:25 키득키득 실험실
08:00 뽕뽕뽕 유치원	13:40 미래 직업 뜨는 직업	17:35 피들리움
08:20 꼬미리바 토요	14:10 EBS 다큐프라임 <송일화의 지구과학 I>	17:45 부흥! 부흥! 브루이즈(재)
08:35 한글친구 이리차	14:10 EBS 다큐프라임 <송일화의 지구과학 II>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8:45 깨미	15:30 미스 스파이더와 개구쟁이들	18:10 바두와 친구들
09:00 방구대장 뽕뽕	15:55 아기고릴라 동동	18:15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2
09:10 부흥! 부흥! 브루이즈	16:00 뽕뽕뽕 유치원(재)	18:20 창의가 반짝!
09:25 똑딱똑딱 밥 아저씨		18:3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3
09:40 변신로봇 5		18:35 올리비아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워	오하오우 니혼고
<p>금서 돈/금세 돈</p> <p>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 '서 돈짜리 금반지'는 꿈도 못 꾸다.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 '세 돈짜리 금반지'는 꿈도 못 꾸다.</p> <p>표준어는 '서 돈짜리'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 '돈, 말, 밥, 꿀' 등의 앞에서 수를 나타내는 말이 쓰일 때 '서 돈, '세 돈, '석 돈'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 제17항에서는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이는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三)'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돈, '말, '밥, '꿀' 등의 의존명사 앞에 붙어 '넷'을 나타내는 말도 '너(四)'가 표준어입니다. 즉 '너 돈짜리 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p>	<p>Do you have a seat near the back? 뒤쪽 가까운 좌석이 있나요?</p> <p>A : Good morning, sir. Passport and ticket. Please. B : Could I get an emergency exit seat, please? A : Oh, I'm afraid we don't have any left. I can try to find an aisle seat. B : If you would, please. Do you have a seat near the back? A : Okay, we still have one aisle seat left. It's near the back of the plane. B : Great. That's very helpful of you.</p> <p>A : 안녕하세요. 손님, 여권하고 티켓, 부탁드립니다. B : 비상탈출구 좌석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 아, 죄송합니다. 남은 좌석이 없습니다. 통로 쪽 좌석을 알아볼게요. B : 그러시다면, 뒤쪽 가까운 좌석이 있나요? A : 네, 통로 쪽 좌석이 한자리 남아있습니다. 비행기 뒤편에 가까워요. B : 잘됐네요, 도움이 되겠어요.</p>	<p>得不到的东西永远是最好的 남의 떡이 커 보인다</p> <p>얻을 수 없는(得不到) 물건(东西)은 언제나(永远) 제일 좋은 것(最好)이다. 우리말의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중국어 비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p> <p>송광사 불일암에 무소유를 실천하며 모범적으로 살다가 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불일암을 찾아가던 적이 있습니다. 송광사 사람들은 진입로 왼쪽에서 저쪽으로 '쭈' 올라가면 있다고 말하였으나, 자동차 생활에 익숙한 저 예겐 한참이었습니. 그렇게 승차 오르면서 걷다보니 두 갈래 갈림길에 나옵니다. 두 갈래 갈림길에 세워진 나무 이정표엔 '남'과 '북' 표시만 있습니다. "남"은 가급적이면 오지 말라는 말없는 소리였고, 그래도 와 보겠다면 길 잃지 말라는 배려의 화살표인 것이죠. 수도자의 친절을 보았습니다.</p>	<p>これはどこで撮った写真ですか。 이것은 어디서 찍은 사진입니까</p> <p>A : 金さん、これはどこで撮った写真ですか。 B : 去年に夏日本へ行った時撮った写真です。 A : 写真の真ん中の人は誰ですか。 すごく美人ですね。 B : 旅行先であつた親切な日本人です。</p> <p>A : 김 씨 이것은 어디서 찍은 사진입니까. B : 작년 여름 일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A : 사진의 한가운데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우 미인이군요. B : 여행지에서 만난 친절한 일본인입니다.</p> <p>[단어정리] 写真 사진 写真を撮る 사진을 찍다 去年 작년 真ん中 한가운데 美人 미인 旅行先 여행지</p>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9일(음 9월 3일 丁亥)

子 36년생 앞면도 속아 주는 입장이다. 48년생 새 자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60년생 일손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인력을 확보하라. 72년생 아침을 만나는 격이니 계획을 세워라. 84년생 지탄 받는 사람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행운의 숫자 : 13, 27

丑 37년생 괴물타라도 처리할 일은 해야 한다. 49년생 사람은 사는 집은 문지방이 달아야 한다. 61년생 다투면 소송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니 자제하라. 73년생 오프라인으로 이성이 흐려질 수 있다. 85년생 뿌리가 박혀야 가지도 많이 된다. 행운의 숫자 : 47, 66

寅 38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면서 재충전하라. 50년생 처세에 따라 상대의 태도가 달라짐을 알라. 62년생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으나 약속 이행으로 인한 금전의 지출은 있다. 74년생 만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21, 64

卯 39년생 행동만을 보지 말고 환경을 생각하라. 51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개혁하라. 63년생 부자연스려움도 반박된 상황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 75년생 주위를 의식하다 보면 주관을 잃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7, 04

辰 40년생 경우 없는 상대에게 해방할 수 있는 기회를 쥐라. 52년생 상의를 벗어 놓고 다닐 수 있다. 64년생 평가의 잣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76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오니 서두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6, 69

巳 41년생 궁지에 몰린 상대에게 조건 없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라. 53년생 처리할 일은 서둘러서 해야 한다. 65년생 잦다운 면모를 보여줄 때이니 마음껏 기량을 발산하라. 77년생 대범하게 처리할 때다. 행운의 숫자 : 88, 76

午 42년생 상대의 배 있는 말의 의미를 간파해야 하라. 54년생 못이 드러나 어려운 걸음을 하시니 마중을 나가라. 66년생 위험과 묘안은 공존한다. 78년생 과거의 일을 잘 마무리하면 미래가 열린다. 행운의 숫자 : 93, 25

未 43년생 지루함을 참고 유지하고만 있으면 되겠다. 55년생 윤곽이 드러나 시작할 때 바둑 추승하라. 67년생 상대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79년생 새로운 구상이 설계를 실행할 때다. 행운의 숫자 : 65, 54

申 44년생 나무는 바람을 맞고 강해지느니라. 56년생 단순하거나 예견 가능한 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 68년생 낮 맑은 새가 들고 밤 맑은 쥐가 듣는다. 80년생 기간이 아니라 친소의 문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86, 48

酉 45년생 웃어본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 57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 있다. 69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참신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81년생 절망은 큰 수입과 같다. 행운의 숫자 : 81, 58

戌 46년생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것은 정체를 의미한다. 58년생 희망이 보인다면 밀어붙여라. 70년생 세태에 좌우된 대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82년생 지인에게는 긍정적인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5, 87

亥 47년생 과음을 주의해야겠다. 59년생 집안의 경사로 인해 축하를 받는다. 71년생 편발보다는 인간적 감화가 더 완벽한 효과가 있다. 83년생 늦은 시간까지의 회식 자리 후 심야 귀가 길을 조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3, 99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신버림 **강달달 아동제거사**

판문점으로 신버림의 열정적애심을 시위하게 전해드립니다.

☎010.5523.0510 062.675-0510